



불타는 도심 광주지역 낮 최고 기온이 37.2도에 달하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운날을 보인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클린로드 시스템이 작동해 물이 분사되며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교대 합격선 3등급 후반까지 하락

전국 12개 대학 중 10곳 지난해보다 점수 하락...5곳 4등급도 서울교대도 3등급대 하락...교권 침해 논란·학령 인구 감소 탓

2024학년도 대학 정시에서 광주교육대학교의 합격선이 3등급 후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일부 대학 초등교육과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했다. 19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정시에서 교대 및 초등교육과(일반전형 기준, 지역인재 등 특별전형 제외) 대학 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합격점수를 공개한 대학 12개의 최종 등록자의 국어·수학·탐구영역(국수탐) 평균 백분위 70%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12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지난해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5개 대학은 최종 등록 학생의 수능 평균이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는 교대와 초등교육과 중 합격선 평균 4등급대는 아무 곳도 없었다. 국수탐 평균 4등급 이하인 곳(백분위 평균 점수 77점 미만)은 진주교대(75.20점), 제주대 초등교육(73.83점), 광주교대(71.42점), 청주교대(70.83점), 대구교대(67.75점) 등 5곳이었다. 광주교대의 경우 지난해 87.67점에서 올해 78.17점으로 떨어졌다. 3등급 최상위권에서 최하위권으로 하락했다. 서울교대의 국수탐 평균 점수도 87.67점으로, 수능 평균 3등급대로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교대 국수탐 평균은 90.67점으로, 수

능 2등급이었다. 서울교대는 교대 중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데, 2등급 합격선이 무너진 것이다. 합격 점수가 전년에 비해 오른 곳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90.50점, 2.83점 상승), 춘천교대(80.33점, 0.16점 상승) 등 2곳 밖에 없었다. 교대의 합격선 하락에는 교권 침해 논란과 학령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교사 임용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광주시교육청은 해마다 한자릿수로 초등교원을 선발하고 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교대 기피현상 심화로 공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상위권 학생의 교대 비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다"며 "교대 합격선이 4등급대가 거의 절반인 수준으로, 상위권 학생의 교대 선호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

보건의료노조, 행정소송 제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직원과 환자·보호자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폐업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9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절차와 공지가 없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은 무효"라며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노조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발

생한 조례의 하자 및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주시의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된 만큼 폐업 또한 조례에 의거해야 하지만 조례에 폐업 관련 규정은 없고 광주시의회 차원의 보고나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폐업을 하기전 공청회나 여론 수렴도 없었을 뿐더러 직원, 환자·보호자 모두 폐업 사실을 폐업 이틀 전에 언론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며 "광

주시가 폐업 사실 자체를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광주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하지만 폐업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가 없었고 관련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이번주 중 직원 46명과 환자·보호자 15명이 함께 총 60여명 규모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설립돼 전남대학교 병원이 10년간 위탁 운영해왔다.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적자 때문에 지난해 11월 28일 폐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37.2도

광주 66년만에 '6월 최고기온'...오늘 5mm '찜뽀비' 전남 7곳 폭염주의보 해제될 듯...22일부터 장맛비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에 22일 오후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 장맛비는 아니지만 20일 광주·전남 지역에 '반짝비'가 내리면서 월 최고 기온 극값(최대치)을 경신한 광주·전남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5mm 내외, 전남남해안에 5~20mm가량의 비가 오겠다"고 19일 예보했다. 이번 비로 지난 19일 광주와 담양 등 전남 7개 지역에 내리던 폭염주의보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광주가 37.2도를 기록해 지난 1958년 6월 25일(37.2도) 이후 66년 만에 6월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무더위가 다소 누그러진다는 것이다. 이날 영광(34.8도), 해남(33.5도), 진도(30.9도) 6월 일 최고기온 극값을 갈아치웠다. 20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5~31도, 21일 낮최고기온은 27~32도로 분포하면서 전날보다 2~6도 가량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이 30도 내

외로 한여름 날씨는 이어지겠다. 이후 22일부터는 제주도 해상에 형성된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광주·전남이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겠다. 장맛비는 23일까지 이틀간 이어진 후 장마전선이 제주남쪽해상으로 이동해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구체적인 강수량은 예보되지 않았지만 이번 장맛비는 강약을 반복하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남부지역에 영향을 끼칠 장마전선이 19일 늦은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지역에 50~10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광주·전남 장마는 지난해(6월 25일)보다 3일 빠르고, 평년(6월 23일)보다 하루 먼저 온 것이다. 한편, 광주지역 여름 낮 최고기온은 지난 2018년(7월 27일·8월 15일)과 1994년(7월 19일) 38.5도가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록돼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번에도 '불수능' 될까...9월 4일 '마지막 모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가능할 수 있는 모의평가가 9월 4일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수능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을 진단하고 보충하는 한편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앞서 6월 4일 시행된 6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분 수능과 같이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번 9월 모의평가도 얼마나 어렵게 출제될지에 수험생의 관심이 쏠린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소위 '킬러문항' 출제는 철저히 배제된다. EBS 연계율 자체는 영역·과목별 문항 수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수능과 같다. 모의평가 응시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연합뉴스

전남대, 세계대학 영향력평가 7개 부문 거점국립대 1위

전남대학교는 '2024 THE 세계대학 영향력평가' 7개 부문에서 거점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 분야로 꼽힌 7개 부문은 빈곤퇴치, 건강과 웰빙 증진, 성평등 달성,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행동,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이다. 전남대는 전 세계 125개국 215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빈곤퇴치 분야 24위, 기아 종식 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분야 29위,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분야 52위에 올랐다.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는 2019년부터 세

계대학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17개 항목을 기준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를 조사하는 권위 있는 대학평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